



일주문

“비지정 불교문화재 보호주력”

임오년을 뛰는 불자 ④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책임연구원 임석규 씨



충청지역서 포교 간담회
도명 조계종 포교원장은 23일 유성 스페시아호텔서 대전 충청지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포교간담회를 열었다.



대전불교회관에 기금
법장 수덕사 주지는 지난 18일 조계종 전법도량인 대전불교회관에 포교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시형제 폐지 의견교환
진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는 25일 과천정부청사를 방문, 법무부장관을 만나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日 포교 마치고 귀국
만오 대한불교 법인종 총무원장은 일본 오사카에 순방사를 건립, 일본 포교에 전념하다 최근 귀국했다.



등산불교에 입학
김태복 육군소장(전 101여단장)은 2일 서울 등산불교대학 불교학과 2년 과정에 입학한다.



국제지역학회 회장에
김희오 동국대 교수는 15일 부산의국제대 국제관에서 열린 국제지역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장으로 피선됐다.



‘쌍둥이끼리’ 봉정식
전재성 한국백아리성전협회장은 25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우리말 <쌍둥이끼리> 완간 봉정법회를 가졌다.



포교사단중앙위 개최
김대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12일 포교원에서 제1차 포교사단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지도자 아카데미’ 회장
박주천 부산불교교육대학 부학장은 25일 부산 불교신도회 부설 불교 회고지도자 아카데미 2기 회장에 선임됐다.

인사
한국불교청년회 △총재= 최혜초 △부총재= 김무현
정대은 박원목 우혜국 문소현 △중앙회장= 도각 △부회장= 박재익 △사무총장= 고창영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는 불교문화재 보존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 문화재 일제 조사를 토대로 문화재 도난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비지정 불교 문화재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는 “조사를 다니다 보면 각 사찰의 스님들도 사찰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일제조사가 끝나면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를 국가와 시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도난방지는 물론 문화재의 수리와 보수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흥사 등 92사찰 소유 1767건 대상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하 조사단) 책임연구원 임석규(35) 씨. 그는 올해 조사단이 10년 계획으로 실시하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중심에 서 있다.

조사단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첫걸음으로 4월부터 강원도 신흥사와 월정사 본말사 92개 사찰이 소유한 1,767건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그는 “조사할 때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을 위해 조사단이 국가 보조금 5억원을 지원 받아 실시하는 것이다. 일제 조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불교 문화재 현황을 파악한다는 큰 의의가 있다.”

‘자비·하심’ 마음 봉사 매진

기장사암련 6대 회장 지모 스님

“기장군 불교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화합입니다. 자비와 하심으로 기장군내 사람들의 힘을 한데 모아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17일 기장군청 갈매기홀에서 기장사암련 6대 회장으로 취임한 지모(기장) 묘법사 주지스님은 양봉되어 있던 기장군불교사암련 합회가 통합된 것이 무엇보다의

갈등 흔적 해소하는 일부터 시작

미이고 기쁜일이라고 했다. 기장사암련이 어렵게 통합을 이룬 후 첫 통합회장에 취임한 지모 스님은 통합 초대 회장이라는 부담 때문에 회장직을 어렵게 결심했다. 스님은 “남아 있는 갈등의 흔적들을 말끔히 일소시키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각오이다.

남은 그 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던 초파일 봉축법요식과 시민 축제 등의 주요사업을 계속하고 복지장학사업을 기장사암련의 정점 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30여 개의 사암과 힘을 모아 1백여 개에 달하는 사암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겠다”며 “불교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에 봉사하는 기장사암련이 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불교복지 정체성 확립 역점

부산 개금복지관 관장 박용하 씨



장애인·영세민 자립할 수 있게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립을 앞당기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정이나 자선의 복지개념에서 탈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꾸기 위해 불교가 해야 하는 역할을 찾아 행하자는 것이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가 운영하는 개금복지관 관장직에 최근 취임한 박용하(44) 불국토 사무국장은 “불국토에서 재가자가 관장을 맡기는 처음이라 부담이 크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94년 불국토가 처음 개금복지관을 위



금정복지관 위탁운영 기념법회

사회복지법인 범어사는 21일 금정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기념 및 정여 스님 관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대표 정여스님, 김문근 금정구청장 등 3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서 정여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따뜻한 마음이 담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교복지의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장학회 12명에 장학금

광주불교장학회이사장 김영선은 11일 중·고교생 및 대학생 12명에게 장학금 530만원을 전달했다. 강 이사장은 전달식장에서 “불교 정재를 나눠가진 학생들이 훗날 자신들의 일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장학회는 지금까지 광주지역 학생 1백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소년지도자 팔관제 모임

(새창나침)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마음의 전화는 22-23일 양일간 마안산 탐사에서 ‘제16회 청소년지도자 팔관제 큰모임’을 개최했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중앙회장 도각 스님은 “태고보우국사의 원용정신과 호 정신을 계승하고 선수행을 통해 청소년 포교를 이끌어 가는 참된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생명나눔’ 백혈병 환자에게 성금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부장 일철스님은 17일 전남대 병원 회의실에서 모금활동으로 모인 기금 560만원을 백혈병 환자 김성남씨를 비롯한 4명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일철스님은 “병마로 고생하고 있는 백혈병 환자 등을 위한 모금 운동과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200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 있는 불자들의 입학 을 기다립니다.

- ① 모집 내용
가.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00명(편입생 약간명)
나. 법 과 과 : 00명
다. 불교미술과 : 00명
- ② 응시 자격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신입생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강원 사교과 이상의 수료자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나. 2학년 편입생
1) 정규대학 졸업자
2)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 ③ 전형 방법
※필기시험 및 면접(궁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 ④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2년 1월 14일(月) - 2월 22일(金)
(평일은 10:00-17:00, 토요일은 12: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 ⑤ 전형일
※ 2002년 2월 24일(日) 10:00 - 17:00
- ⑥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 양식)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라. 고교 생활기록부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사. 반명함판 사진 6매
- ⑦ 전형료
※ ₩30,000(불교미술과 ₩40,000)
- ⑧ 참고사항
가.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2년 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게는 대선법계를 풍수 함
나. 기숙사 운영(지방 학생 문의 바람)
- ⑨ 기타
가. 제출 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하면 됨
나.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다.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 ⑩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763-0229,8536)
나. 태고종 총무원(☎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총무원
라. 경서원(☎733-3346)